

에조우는토끼

에조우는토끼는 쥐처럼 보이지만, 토끼의 일종입니다. 우는토끼는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포유류로 전 세계적으로 약 30 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에조우는토끼는 **사람의 주먹만 한 크기로 체중은 약 120g** 입니다. 에조우는토끼는 바위가 많은 산의 사면에 서식하며 꽃과 이끼, 그 밖의 식물을 먹습니다.

에조우는토끼는 여름에 먹이를 모아 저장합니다. 겨울에는 저장해 둔 먹이를 먹으며 지내고 바위틈에 숨어있지만 겨울잠은 자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에조우는토끼의 서식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서식지들은 고산식물이 자라는 암석지대나 바위가 많은 산의 사면 등입니다. 서식지는 시카리베쓰 지역 전체에 퍼져있습니다.

에조우는토끼는 홋카이도의 고유종으로 홋카이도 중부의 해발고도가 높은 산에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이가 되는 고산식물이 있다면 해발고도가 낮은 **바위**가 울퉁불퉁한 사면에도 나타납니다.

에조우는토끼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에조우는토끼는 최종빙기에 홋카이도에 왔습니다.

약 2 만 년 전 지구는 지금보다 기온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 기간에 홋카이도의 기온은 현재 기온보다 최대 10℃나 낮았습니다.

지구상의 물 중 더 많은 부분이 얼음으로 되어있었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무려 120 미터나 낮았습니다. 해수면이 더 낮았기 때문에 얇은 해저가 드러났고, 드러난 해저가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육교 역할을 했습니다.

홋카이도는 사할린을 경유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육교를 통해 매머드 등 많은 동물이 홋카이도로 건너왔습니다.

에조우는토끼도 이렇게 홋카이도에 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동 시기는 더 옛날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홋카이도로 건너왔을 무렵에는 삼림지대도 적고 지형의 대부분이 울퉁불퉁한 암석지대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우는토끼의 이동을 촉진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에조우는토끼는 홋카이도 중앙부의 다이세쓰산과 히다카 산맥 등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북동부의 시레토코와 홋카이도 동부의 아칸 역시 산악지대로 이상적인 서식지가 있지만, 이 지역에는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지에 분산된 온천,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지형과 화산 활동이 영향을 끼쳐 에조우는토끼의 이동을 막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조우는토끼는 수만 년에 걸쳐 서서히 홋카이도로 건너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약 1만 년 전, 기온이 급상승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온도 변화는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삼림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에조우는토끼는 산악지대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에조우는토끼의 서식지는 서서히 암석지대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고산으로 한정되어 갔습니다.

시카리베쓰의 산에서는 영구동토와 ‘풍혈’이, 에조우는토끼 등 한랭한 기후 속에서 사는 동식물을 지탱해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최종빙기에 홋카이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